5/20(금) 에스더 1-5장 제국의 두 얼굴

에스라-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 귀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더서는 타국에 잔류한 공동체가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중에도 나름의 안정을 누렸습니다.
사회활동, 상업활동, 부의 축적이 가능해 은행을 운영하는 이들,
제국의 고위직에 오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2:17-18, 단6:3).
가옥을 짓고 공동체를 이뤄 삶의 기반을 마련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의 귀환길이 열렸을 때 <잔류>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호의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 권력이(하만) 원수로 변하자 하루아침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생존을 위협받습니다(3:6).
왕비도, 왕의 최측근도 내일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1:12, 2:19, 4:11, 단6:1-3,16)

시대와 상황마다 왕들의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고레스 왕은 귀환 길을 열어주고 지원도 했지만(스1:1-4),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는 재건을 막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의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통해
안정을 이유로 택한 <제국>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스4:5,6:7,4:21, 느2:1,6-9 **1장, 2:1-4,3:7-11,8:4-8

진정한 평안과 안정, 생존과 번영이 어디에서 오는가?
귀환 공동체가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 영적 갱신을 이뤘듯이
잔류 공동체 역시 박해를 지나며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제국>의 호의는 한 순간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잔류 공동체는 이방 땅에서 <잔치(2:18)>의 신기루를 경험합니다.

나의 도움과 안정,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❶ <제국>의 호의와 나의 <지위>가 영원할 것처럼 안심하며 의존합니까?
❷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시작기도 + 통독 에스더 1-5장